

살롬!

자주 소식을 나누지 못하지만 그렇고 감사한 마음으로 건강과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5 년이 이렇게 마무리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올 해의 시간은 그냥 달린 것이 아니라 멀리 날아올랐다가 몇 개월 만에 착지한 느낌입니다. 지인들의 투병소식은 물론 3 월에 이곳 M 시에서 있었던 큰 지진으로 인한 생활의 변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로 눈 앞에서 건물들이 기울고 주저앉는 것을 보았을 땐, 사역지에서의 30 년 시간을 은근히 자만하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9)

그래서 올 해도 마무리하며 남는 것은 ‘참 은혜였구나,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 뿐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M 델레이 교회들!

산골이나 시골 읍내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수확작물을 가져와 예배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었지만, M 국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줄이야...

올 해는 11 월 주일에 방문했던 교회들마다 야채 과일 계란등의 헌물을 가져와 강단에 놓고 추수 감사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로 보여지는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미얀마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미얀마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성장하고 지진을 겪고 나서 예배당까지 번듯하게 보수되었습니다.

새단장을 한 교회 건물에 비해,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삶은 고물가로 움츠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성도의 교제는 풍성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버티며 오히려 감사로 예배하는 교회를 보며 함께 감사가 넘칩니다.





M 텔레이 교회 연합 금식성회: M 텔레이에는 공식적인 교회 연합체 3 개가 있습니다. ○○마 교회 협회 MCC/ M ○마 비음주의 협회 MECA/ M 텔레이 기독교 연합회 MCCF 입니다. 지난주 토요일(11/29) 에는 이 세 단체에 소속된 모든 교회의 사역자 중심으로 250 여명 성도들이 일일 금식하며 함께 모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현실의 삶에서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공회하심을 간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멀지만 가까운 Y 콘의 교회들!

○콘을 떠난지 이미 10 년이 지난 지금, ○콘 방문은 연중행사처럼 되었지만 여전히 매주 소식을 받을 때마다 전도의 열심과 뜨거운 예배를 듣습니다.

매해 여름 홍수때마다 잠겼던 GFC 2 (하나님의 가족 교회 2)는 모아왔던 건축헌금을 seed 머니로 8 월에 건축을 시작해서 11 월에 아름답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친주 산맥, 산골에서 온 청년들 중심으로 모여 상가 3층에서 예배하는 ALC(풍성한 교회)도 여전히 기숙사 청년들을 제자 훈련중입니다. 기숙사 건물이 교회와 함께 새로 건축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곤 외곽 논두렁 가운데 세워진 JRFC(○수다스럼헬로십 교회)는, 본교회는 물론 지역 셀 교회로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이신 조나단 □사님께서 저희 GIBY 출판사에 새 이사로 합류하시게 되어 좋은 어른을 모시게 됨이 너무 감사합니다. 1월부터 JRFC 교회 사역자들 중심으로 10회 on & off 청지기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하게 됩니다.



GIBY 출판사: BxxleTime 과 교육지원

올 해 인쇄를 쉬었던 바이블타임은 2026 년 분기용 매일 성경 읽기표와 말씀상고 내용으로 출간되어 12 월에 보급됩니다. 기존의 미디어 사역단체와의 온라인 협업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교사 건축을 마친 MAY 학교와 아직 지진으로 무너진 교사들을 복구중인 ㅇㅇ빌루 고등학교 컴퓨터실을 위해 두 학교에도 태양광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새로 건축된 MAY 학교 2 층에서 매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학교 근처 마을을 위한 귀한 예배터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사역파트너 캠프가 무산되었지만 조출하게 GIBY 사무실 직원과 이사님가 족이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내년 3-4 월중 사역파트너 가족들을 다시 초대하여 한 자리에 모일 날을 기대해봅니다.



기도합니다.

Sweet December! 12 월 1 일 이 되면 □안마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맘껏 성탄행사를 하며 전도해도 허용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첫 주 부터 곳곳의 ㄱ회들의 성탄행사가 있습니다. 구데타 이후, 5 년만에 드디어, 12/28 일과 내년 1/11 일 두 번에 걸쳐 □안마 총선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성탄과 새해 되기를, 공정한 선거로 새 시작이 되기를 두 손 모읍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끌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테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9:9-10)

평화의 왕으로 오신 ○수님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며 □텔레이에서

Merry Christmas!

정시나 스 ㄱ사 드림

